

감성과 기술을 겸비한 패션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컬 디자이너

강애자 · 윤미경*

(주)리엔퐁 한국 테크니컬 디자이너 디렉터, *숭의여자대학 패션디자인과

Fashion Specialist: Technical Designer

Aisa Kang · Mikyung Yoon*

Li & Fung(KOREA)LTD TD direct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eui College

1. 서론

일반적으로 의류업체에서 의복의 구조적 설계와 봉제, 생산과 결부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직업은 패턴사나 생산관리자로 알려져 있다. 패턴사는 패턴너, 패턴 메이커라고도 하며 디자이너의 스케치를 패턴으로 제작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지도, 기술적인 관리 부분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을 디자인과 접목된, 감성을 가진 패션스페셜리스트라는 의미를 더하여 모델리스트(modeliste:佛)라는 직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와 일면 유사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테크니컬 디자이너(technical designer)는 의복의 품질을 좌우하는 감성적,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의복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생산단계의 전면에서 의복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로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트레이딩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의류계열 전공자들에게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류업체에는 장차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수한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환경에서는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세계화된 다국적 무역(global trading) 환경 하에서는 디자인과 생산, 품질의 관리 등 전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통합된 생산기술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지고 있다. 즉, 세분화, 분업화된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통합된 시스템 하에서의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이러한 생산, 소비 환경의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2.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배경

인건비의 상승, 운송, 통신의 발달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거점을 두고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의류 산업은 그러한 생산방식의 대표적인 활용 모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 브랜드를 둔 바이어들은 홍콩, 한국, 대만, 상해, 인도네시아, 인디아 등지에 바이 에이전트(buying agent)를 두고, 무역회사인 벤더(vendor) 회사와 거래하여 제품의 관리와 부자재의 수급을 총괄하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타이완, 니카라과와 같은 저임금국가에 현지법인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과정을 특정상품구매(specification buying)라고 하며 대표적인 바이 에이전트로는 Li & Fung, MAST, PBMS, JC Penney, RH Macy, May, GAP, TSS/AMC 등이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벤더 업체로는 한솔섬유, 신성동상, 세아상역, 한세실업, 태평양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해외 대형 체인스토어나, 의류회사를 바이어로 두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은 과거의 단순생산

만 하는 OEM 수출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생산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ODM (제조자디자인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ODM 방식은 제조업자 개발생산 또는 제조업자 설계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을 일컫는 말로서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유통업체 등에 공급하고, 유통업체는 자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방식과는 구별된다. 즉,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생산만하는 OEM 방식과 다른 고부가가치형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바이어인 대형 브랜드들은 자체회사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Gap Inc의 Banana Republic, Old Navy, Gap, The Limited Corporation의 Express, The Limited, Victoria's secret, La senza, A&F의 Abercrombie, Hollister, Abercrombie & Fitch 등이 있고 이를 자체상표(private label)라고 한다(그림 1).



사진 1. 국내 벤더회사의 바이어인 대형브랜드 자체상표의 예

이와 같이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자체 상표를 가진 의류업체가 자신의 상품의 실제적인 제조를 협력업체에게 맡기는 특정상품구매(technical specification buying)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바이어인 대형의류업체와 ODM방식의 제조업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직종으로서 작업지시서와 제품치수에 근거하여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도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게 위해 패턴사와 생산 관련 구성원과 협의,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인체에 적용하여 작업 가능한 제품으로 구체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들은 먼저 디자이너의 스케치가 의복으로 제조되기 위한 작업지시서, 스타일 명세서인 테크니컬 패키지를 만들고, 이에 따른 패턴의 제작과 수정, 의복의 맞춤새와 의복 생산 공정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핏 테크니션(fit technician), 핏 엔지니어(fit engineer, FE)라고도 한다. 국내의 무역회사에 속한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수정과 변경사항에 대해 핏(fit)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주문자인 바이어

의류업체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와, 또 한편으로는 공장을 비롯한 협력업체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면서 디자인을 제품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크기는 바이어의 주문에 적극 대응하면서 신뢰를 구축하여 바이어와 협력업체가 함께 발전하는 윈윈(winwin)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현재 새로운 룩을 창조하는 디자이너(designer),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디자인 디렉터(design director),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어소시에이트 디자이너(associate designer)와 함께 창조적 문제 해결사인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늘고 있다.

3.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역할과 담당 업무

현지의 테크니컬 디자이너(local technical designer)는 먼저 바이어 테크니컬 디자이너(technical designer)로부터 온 상세명세서(technical packet)에 의거하여 의복 샘플을 검토한 뒤, 피팅 평가, 구성(construction & workmanship), grading 편차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이 결정된 스타일에 대한 이상적인 핏(fit: 맞춤새)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머천다이저(MR:retail merchandiser/MD:merchandiser)와 벤더에게 개발, 미팅 결과, Technical Packet에 명시된 상세 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미 발송 결정된 샘플에 대한 사유 분석 후 패턴, 원단, 봉제 영업파트에 합리적인 수정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핏(fit)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샘플을 확인하고 construction을 분석하여 수정 방안을 제시하는데 피팅 평가 시 바이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샘플 발송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여 초기에 조정하거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어를 리드하여 생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작업기간이 점점 단축되는 추세로 인해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핏 프로세스는 브랜드마다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샘플 진행 단계를 거친다. 패턴과 함께 바이어로부터 받은 최초의 샘플 (original sample), 사진(photo), visual inspiration sketch를 제시하는 개발(develop)부터 proto단계, 몇 차례의 핏 견본(fit sample: 주로 1~3회) 단계를 거친 후, 승인이 되면 승인 견본(approval sample), 그리고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가 생산 견본(production sample)

을 제작하게 된다. 약 2회의 전생산건본(pre-production sample:PP)과 함께 기준건본(reference preproduction sample:Ref PP), 벌크(bulk)와 TOP(top of production)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검토, 평가 때마다 디지털 사진, 또는 견본(sample)을 바이어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머천다이저는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승인한 샘플을 바이어에게 송부한다. 진행과정은 바이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능력, 역할에 맞게 업무분장(分掌)이 되고 있다.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가장 큰 업무는 테크니컬 패키지를 관리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는 일이며, 주문자인 바이어 의류업체에 속한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주요 업무는 테크니컬 패키지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도식화와 같은 디자인 스케치를 비롯하여 제품의 부위별 크기, 사이즈 간 편차, 소재, 라벨 등의 정보가 입력된 디자인 명세서 묶음(set)은 단시간에 전송, 공유되어야 하고 저장이 용이해야 하며, 수정 시 재 사용을 필요로 하므로 사진과 그림의 수정 등이 모두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타일 명세서인 테크니컬 패키지(technical packages, tech pack, T/P)는 스펙 패킷(spec packet)이라고도 하며 주문자인 의류업체의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초안을 만들고 에이전트나 벤더회사의 테크니컬 디자이너, MD(merchandiser)와 등의 협력하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지침서로서 부가정보의 추가나, 변경 사항 등이 누적 기재되므로 정확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테크니컬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테크니컬 디자이너에게는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사용을 통한 문서화 능력이 요구된다. 이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각국의 공장에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비주얼한 이미지나 단순명료한 작성 양식의 개발 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문서화 작업을 위하여 엑셀과 같은 범용 프로그램이나 전문 프로그램인 PDM(product data management), Web-DPM, BMS(business management software), Karat Cad, Gerber program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도표(tracking chart)나 핏 명세(fit list) 등을 만들 수 있다.

테크니컬 패키지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Spec sheet : sample 의복의 주요 부위별 치수가 표기된다.
- ② Fit comment section: 공장으로부터 온 샘플을 피팅 후 수정사항을 기입하는 페이지로서 메모와 그림이 추가된다.
- ③ BOM(bill of material): 옷에 들어가는 트림(trim : 지퍼, 심지, 안감, 테이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페이지이다.

④ Technical sketches, fit sketches, construction page: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복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도식화하는 페이지이다.

⑤ Full graded spec :확정된 표준 샘플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여 사이즈 간 편차(graded rule)를 적용해서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로 사이즈를 전개하는 페이지이다.

그 외에도 소재나 부자재 샘플 정보가 담긴 fabric specification sheet, sample sheet, 라벨의 종류와 위치를 표시하는 label specification sheet, 태그(tag)과 단추 주머니(button bag)의 종류와 위치를 표시하는 garment marketing sheet, 프린트를 위한 그래픽에 대한 내용을 담은 logo sheet, 샘플의 부위별 사이즈를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 허용 여부를 점검하는 evaluation worksheet 등이 있다.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로는 협력공장으로부터 제작된 단계별 샘플을 관리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일이다. 이 때 디자인에 대한 핏(fit)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턴 능력과 의복 구성에 대한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 샘플을 바디에 착의시킨 후 여유량과 균형, 비례, 테크니컬 핏(fit)을 점검하여 분석하고, 의복의 부위별 치수는 바이어로부터 제시된 허용치수 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샘플의 사이즈의 측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정을 지시한 후 생산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바이어가 제시한 사이즈별 편차를 점검하고, 사이즈별 그레이딩 패턴들이 중합된 네스트(nest)패턴과 비교하여 검토해야 한다.

테크니컬 디자이너(TD)의 보고와 업무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수석 디자이너(senior TD) 또는 그 상위직급에 보고한다. 팀 내 관리 파트너인 동료 디자이너(associate TD), 보조 디자이너(assistant TD)에게는 직접 보고하며, 수석 디자이너(senior TD)에게는 간접 보고한다. 이들 간의 의사소통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 보고는 참조(Cc: carbon Copy), 혹은 ‘함께 받는 이를’ 수신자로 하게 된다. 테크니컬 디자이너와 관련된 업무 파트너로는 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소속된 테크니컬 디자이너 팀이다. 간접적으로는 검사원, 제품담당자(product manager), 머천다이저(MR), 바이어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와 의류개발자(garment developer)이다. 외부적인 업무 파트너로는 협력 벤더 회사, 협력공장, 바이어인 의류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외부적인 파트너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능통한 영어구사 능력을 비롯한 의사소통의 기술과 팀웍이 요구된다.

표 1.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조건

전문지식 (Techniq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 머천다이징, 텍스타일 디자인, 의류관련 전공 - 어패럴 기초 패턴 메이킹과 그레이딩 - 바이어의 감성적 표현을 여유량으로 변환, 적용할 수 있는 감각 - 어패럴 핏 평가 경험 (participate in fit sessions) - 생산 프로세스, 생산라인에 관한 이해
도구 (Tool,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사용능력과 친화성 -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라이저 등 주변기자재 사용 능력 - CAD, 그래픽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의 활용 능력 - 적절한 마네킹과 sloper 사용
의사소통과 협력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 :영어와 현지어 구사 및 작문 능력 - 효과적인 의사전달 및 대인관계 기술(excellent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 조직 및 팀워크 기여, (group relationship, strong teamwork) - 문화적 다양성 이해 (cultural diversity)
전반적인 업무처리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화 및 시간관리 기술 (organization and time management skills) - 문제 해결의 기술- 독립적, 선도적 업무 능력, 자기 동기부여(self motivation) - 이해 관계자 관리(in cross-functional teams) - 동시 다각적인 업무의 완수능력 (multi-tasking)[표 1]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조건

4.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조건

바이어가 원하는 의류제품을 회사 내외의 거래 파트너와 함께 신속,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테크니컬 디자이너로서 요구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표 1]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작업지시서(기술명세서) 작성 경험, 3년 이상의 미국 소매 의류 지식과 경험, 바이 오피스나 생산자와 함께 의복 생산기술적인 경험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의복은 출고시점이 판매에 매우 중요하므로 납기시한에 민감하지만, 의복 생산은 단계적인 공정과 긴 배송거리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많다. 또한 작업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으므로 시간관리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향상과 샘플제작 비용을 줄이고 시장 대응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입 테크니컬 디자이너에게는 컴퓨터 활용 능력,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초기목표인 의류 개발 과정의 촉진, 제조 파트너에 대한 이해, 단순명료한 테크니컬 패키지(T/P)의 작성을 위해 디테일과 변화를 분석하고 묘사하기 위한 내용, 의복 측정방법 및 의복의 기본적인 균형과 핏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는가에 대한 교육내용이 중심이 되며, 차석(intermediate)이나 수석(senior) 테크니컬 디자이너에게는 의류제품에 대해 핏(fit) 향상을 위한 인식과 문제해결, 그레이딩 원리, 핏, 그레이딩, 치수, 허용치수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의 개발에 대한 교육이 주가 된다.

5. 결론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바이어의 주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제품을 선적할 때까지의 기성복 대량생산 일련의 과정에서 의복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그러므로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독창성과 품질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하는 앞으로의 의류시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전문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한 해에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의류관련학과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약 9000여명에 이르고, 사설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합하면 현재 디자이너의 유효인력은 과잉 공급 상태라고 할 수 있어 비록 디자인 분야에 고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디자인 분야로의 취업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교육통계연보, 2008). 이 시점에서 테크니컬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을 모색함으로써 취업기회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디자이너로의 진출 경향이 두드러지는 현재 인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선진국과 상대하는 에이전트나 벤더회사와 같은 무역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브랜드들도 임금이 싼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브랜드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선진국의 부족한 테크니컬 디자이너로의 해외취업의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과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에서 테크니컬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글로벌 환경에서 체계화된 우

수한 생산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꼼꼼한 성격과 의복의 구조적 분석에 관심이 있으며 감성과 기술력을 추구하는 사람, 목표 시장에 맞춘 최적의 의복 생산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해법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다. 단, 의복구성에 대한 기술력과 영어 구사 능력, 전체적인 프로세스 관리와 같은 장시간의 교육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통계연보 자료검색일: 2008. 6. 1. <http://std.kedi.re.kr>
김순분(2000),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과 선호. 패션비즈니스 4, 4.
김준범(1996), 의류산업에서의 패션전문직종 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30.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희망기업(2008,11,27). 조선일보
이재일(2005), 한국 의류전문인력의 해외 의류업체로의 진출을 위한 모색: 미국편, 패션정보와 기술 vol. 2.
Eric Shurtleff (2003), Still Wanted: Truly Competent Tech-

nical Designers 자료검색일: 2008. 6. 1. <http://www.fashiontalentresource.com>
<http://www.abercrombie.com>
<http://www.gapinc.com>
<http://www.limitedbrands.com>

강애자

경희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LG fashion designer
F.I.T NY fashion design 졸업
Technical Designer Director (상무) worldwide at TSS/AMC
LiFung Tech& QA manager (이사) 재직중

윤미경

덕성여자대학교 불문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석, 박사)
(주) 이랜드 체인 개발실 주임
피에르 가르맹 스포츠 패턴 실장
현 숭의여자대학 겸임교수
현 E&B 기술개발 팀장